

로봇 주요 뉴스(02/12)

[국내]

- 현대차 아틀라스, LG엔솔 배터리 쓴다
- 에이로봇 "휴머노이드 내후년 투입 목표"
- 알에스오토, 고정밀 통합구동모듈 개발 최종 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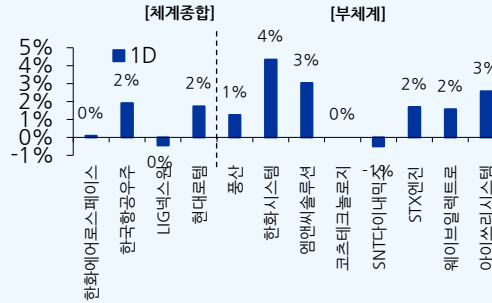
[해외]

- 미국 애플로닉 "내년 10억불 수주예상"
- 램리서치 "반도체 장비 80%, 3년내 로봇이 관리"
- 중국 샤오핑 로봇 '아이언', 시연 중 '안면 추락'
- 하모닉드라이브, 3Q 누계 순이익 달성에 강세

Zoom-In

[Figure AI 브렛 애드콧 인터뷰 주요 내용]

- (1) 하드웨어는 AI에 맞추어서 최적 설계. (2) LLM은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데 부족. (3) 중국이 경쟁상대. 그 외는 위협 없음. (4) 26년 로봇 제조라인에서 로봇이 로봇을 만들도록 할 것. (5) 26년말 보지 못한 가정 환경 내 로봇 투입해 장기 작업 수행 능력 확보하고, 27년 고객 대상 가정 로봇 배포 확대 계획.



방산 주요 뉴스(02/12)

[국내]

- 현대로템, 루마니아 '방산+철도 패키지 수주' 가속도
- 풍산, 드론 전용 탄약 개발 마무리 단계
- 풍산, 검증된 미국 기업 기술 들여와 드론 국내 생산
- RFHIC, 187억 방사광가속기용 고출력증폭기 수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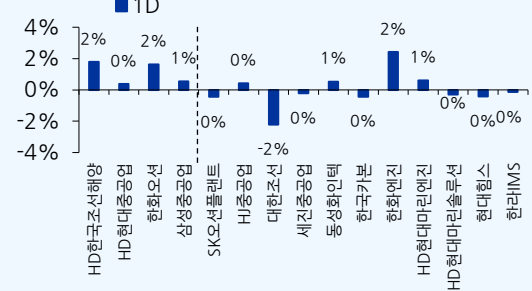
[해외]

- 사우디, KAAN 개발 참여 '최종 협상 단계' 돌입
- 젤렌스키 "휴전 이후에나 가능". 대선 추진설 부인

Zoom-In

[튀르키예의 야심]

- 이번 사우디 WDS에서 튀르키예의 TAI가 개발 중인 KAAN 전투기 사업에 사우디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.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사우디를 방문해 방산 협력 강화를 강조. 튀르키예 측은 26년말 결정 기대하며, 약 20여대 KAAN 판매 가능성을 언급 중.



조선 주요 뉴스(02/12)

[국내]

- 한화엔진 선박엔진 수주. \$138.3M 규모
- 일감 쌓인 조선업, 정부 '외국인 고용 감축'에 긴장
- 한화오션, '로봇군단' 보낸다. 내년 말 미국 필리행
- HD현대중-미포, 노조 통합 수순. 조합원 1만명 규모
- 한화오션, 성과급 400% 원하청 일괄 지급 나선다

[해외]

- 스키피오 탱커스, 중국에서 신조선 2척 추가 발주
- 레온하르트, 광저우 조선소에 제품 운반선 발주
- 일본, LNG 건조 능력 부활 의는 본격화

Zoom-In

[E-7 비자의 축소 검토]

- 한국 정부가 22년 E-7 비자 쿼터 한도를 폐지한 이후, E-7 비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음. 청년 고용 확대, 지역 경제 온기 확산을 위한 결단이나, 조선 업계는 숙련공 인력난 심화 및 인건비 인상 등 우려 표명.